“지속가능한 ‘불교 담론의 장’ 만들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만난 사람 〈불교평론〉 이혜숙 편집위원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99년 故설악 무산 대종사가 창간해 2024년 지령 100호를 발간한 〈불교평론〉은 지난 25년 간 불교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유일무이한 저널이자 불교 지성들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령 100호 발간 이후 〈불교평론〉에는 변화가 있었다. 101호부터는 자립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만난 이혜숙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은 25년 간 한결같이 지원해준 무산 대종사와 신흥사 사중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제는 독자에게 평가받는 경쟁력 있는 저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산 대종사와 후학들이 지난 25년 동안 〈불교평론〉을 지원해주셨습니다. 큰 그늘에서 편하게 살았죠. 한국에서 학술계간지가 25년 간 쉼 없이 발행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간 25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경쟁력 있는 매체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1호부터는 재창간의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불교평론〉은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잡지다. 고담준론의 학술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아카데미와 대중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정치·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비평’하겠다는 창간 모토가 작용한 것으로, 〈불교평론〉의 힘이기도 했다.

“1999년 〈불교평론〉이 처음 발간했을 당시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비평하는 잡지는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신학연구소에서 〈가톨릭 평론〉을 발간했죠. 〈불교평론〉은 한국사회와 한국불교의 시대 담론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다양한 시선에서 해당 사안들을 비평했습니다. 글의 수준도 전문 학술 논문이 아닌 대중적 비평에 가깝습니다. 필자들에게도 요구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불교평론〉은 아카데미와 대중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교평론〉은 매호 새로운 특집을 기획해 담론의 장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600여 편의 특집 논고들이 실렸다. 2009년부터 시작한 열린논단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열려 4월 24일로 129회를 맞았다. 창간 20주년인 2019년부터 단편소설 등 문학작품을 함께 게재하는 것도 대중화의 일환이다.

〈불교평론〉의 본령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령 100호다. ‘한국불교 미래 100년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집기획을 전 권에 걸쳐 다룬 100호에서는 △신행혁신 △교단운영 △전법교화 △문화불사 △사회적 역할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50인의 논고를 게재했다.

지난해 지령 100호 발간해
올해부터 ‘자립경영’ 선언

25년 후원해준 신흥사 감사
“무산 대종사 창간 정신 선양
시대 담론 제시 강화하겠다”

후원회원 1000명 모집 목표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승부

특히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권두언 ‘전도선언을 다시 읽는다’를 통해 잡지의 목표가 ‘전법’에 있음을 되새기며 “부처님이 보여준 결연한 전법의지는 은둔과 안일에 빠진 후대 불교인들에게 커다란 교훈”이라며 “지령 100호를 맞아 이런 반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 특집에서 지적하는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불교계 안팎으로 25년 이상 혹은 100호 이상 계속 발행된 전문지는 흔치 않습니다. 나름 긴 시간 동안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다뤄왔으니, 불교계 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의 주제로 100편의 논고를 실을 생각이었는데, 제작 형편상 50개 주제로 조정했습니다. 홍주간이 권두언에서 언급했듯이 선정한 50가지 주제는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더 좋은 생각들을 모으고 실천해야 합니다. 〈불교평론〉은 그 계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혜숙 편집위원장은…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시정참여사업 선정위원, 법무부 민영교도소 심의선정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제교류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이 편집위원장은 지난 100호에서 한국사회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다뤘다. 그는 ‘저출산 사회에서 불교가 할 일’을 통해 사찰에서 젊은 부모들에게 성평등 솔선 실천운동을 할 것과 종교 간 연대를 제안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종교 간 연대를 재차 강조하며 이야기를 풀었다.

“흔히들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지원으로 저출산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 간 연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찰, 성당, 교회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처가 돼야 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을 돌봄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 논고를 썼습니다.”

〈불교평론〉은 2025년 봄호(101호)를 기점으로 자립경영에 들어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다.

현재 한국 잡지 산업 시장은 침체일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4년 12월 발표한 ‘잡지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며 2023년 기준 잡지 산업 총 매출액은 5315억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21.1% 감소했다. 잡지사당 평균 매출액은 2억9600만원으로 직전 조사 대비 21.5% 줄었고, 잡지사 60.9%가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였다. 연 1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잡지사는 4.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인쇄비용은 높아지는 등 “잡지 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언론재단의 설명이다.

〈불교평론〉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구독회원 모집에 나섰다. 1000명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매호 3000부를 제작 배포할 수 있었던 지원금이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편집실 사무공간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편집위원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닌 결과 제작비는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봄호가 나왔죠. 앞으로 우선 과제는 유료 회원 1000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재정이 〈불교평론〉 유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편집위원장은 지령 101호부터 재창간의 마음으로 다시 뛰고 있다고 했다.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정치·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비평하겠다’는 창간 모토를 되새기며 특집 기획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예측불허의 계기가 없는 한, 특집 주제 기획과 편집 체제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양하고도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부응하는 불교적 비평과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담 은 특집이 계속해서 성실히 기획될 것입니다. 더불어 특집 기획의 주제 범위나 필진, 편집위원도 다양하게 구성해보려 합니다. 지난 25년을 이끌었던 필진과 편집위원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25년을 이끌 필진과 편집위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평가받는 〈불교평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 위원장은 한국불교 담론의 장인 〈불교평론〉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불교평론〉은 불교계 안팎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실사회에 올바른 공론화를 선도하는 불교인문학 전문지입니다. 이는 불법홍포를 위한 귀중한 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불교평론〉이 한국불교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도반들께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 구독 문의 (02)739-5781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각 원장 및 부장의 공란은 이중승적으로 제적 되었음을 알립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주) 한국탑뉴스신문사

KTM 미디어 방송

기업 이벤트 사업. 유튜브라이브 방송 제작.
방송업. 광고업. 현재 130개의 업체에 보도자료송출.
사찰홈페이지 전문 제작 등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KTM 미디어 방송
방송 송출은 준비중에있으니
2월중에 송출가능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www.koreatopnews.net

사업처 서울 02-739-4780 부산 051-625-0776
진주 055-746-9778 남해 055-867-0024